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와 결혼안정성: 국제결혼개방성 가설의 검증*

김두섭**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이 연령과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tching)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부부의 연령상이성과 교육상이성 지수를 계산하고, 이 지수들과 평균 결혼지속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미시수준에서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가 결혼만족도, 결혼지속기간과 이혼확률의 편차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격차가 내국인 부부들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 아내를 구하는 한국 남자들이 배우자와의 사회인구학적 격차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일 것이라고 가정한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이 지지되었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격차가 커질수록 결혼의 해체가능성이 높아지고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가설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단어: 국제결혼, 선택혼, 부부의 상이성, 결혼안정성, 결혼지속기간, 국제결혼 개방성 가설

I. 머리말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문헌들이 존재한다. 베커(Becker, 1974, 1981)의 주장처럼, 두 배우자의 특성들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보충재(complements)로 뿐만 아니라 대체재(substitutes)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론적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0-B00111).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Global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International Migration을 주제로 한 IUSSP 서울 세미나(2011. 10. 20-21.)에서 발표되었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duskim@hanyang.ac.kr

으로는 배우자의 속성들이 정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주장과, 부적(-)이라는 주장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두 배우자의 특성들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동질혼/동질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rriage 또는 homogamy)의 주장이 널리 수용되는 추세이다. 또한 동질혼은 다른 형태의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높다고 여겨진다(Udry, 1966; Curtright, 1971; Bumpass and Sweet, 1972; Rockwell, 1976; Blau and Schwartz, 1983; Atkinson and Glass, 1985; Mare, 1991; Smits, Ultee and Lammers, 1998; Schwartz and Mare, 2005).

지난 20-30년간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극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울러, 국제결혼 부부들의 이혼증가추세도 매우 두드러진다(김두섭, 2006; 김두섭·이명진, 2007; Kim, 2010; Chen, 2008; Kim and Lee, 2008). 이 지역의 국제결혼에서는 남편의 결혼연령이 매우 높고,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 또는 이질혼의 문제를 국제결혼의 안정성과 연계하여 탐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almijn, 1993; Lievens, 1998; Qian, 1999; Qian, Blair and Ruf, 2001; Çelikaksoy, Nielson and Verner, 2006; Kim and Lee, 2008). 동질혼의 가설과 동질혼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에 관한 가설이 국제결혼 부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내국인끼리의 결혼에 비해 국제결혼이 지니는 결혼안정성의 독특한 인과구조에 대해서도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2010)를 활용하여 국제결혼이 연령과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tching)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연령상이성과 교육상이성 지수를 계산하고, 이 지수들과 평균 결혼지속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미시수준에서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가 결혼만족도, 결혼지속기간과 이혼확률의 편차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부 상이성의 정도와 아울러 그 격차의 방향이 결혼안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규명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결혼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혼재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최신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부부 상이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결혼안정성의 인과구조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II. 동질혼과 결혼안정성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결혼이란 같은 사회집단에 속하는 배우자들 간의 결혼을 의미한다. 같은 사회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계급, 교육수준, 인구학적 특성의 동질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동질혼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문화가 폐쇄적이고, 다른 집단에 속한 구성원과는 본질적인 관계가 제한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Birkelund and Haldal, 2003). 사회적 지위의 현상유지 욕구가 강하고 사회적 지위 사이의 장벽이 두터운 사회일수록 결혼 당사자나 그 가족이 중요하다 고 간주하는 속성이 동질적인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 당사자 사이의 지위격차가 심해질수록 결혼의 가능성은 낮아진다(Becker, 1974, 1981; Rockwell, 1976; Blau and Schwartz, 1983; Atkinson and Glass, 1985; Oppenheimer, 1988; Lichter, 1990; Schwartz and Mare, 2005).

선진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규범이 확산되고 조혼 경향이 약해지면서 배우자 간의 연령격차, 특히 남편 연상의 결혼이 퇴조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Atkinson and Glass, 1985; Poppel, Liefbroer, Vermunt and Smeenk, 2001). 이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을 도구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결혼 당사자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문화적 변화를 의미한다(Putte, Poppel, Vanassche, Sanchez, Jidkova, Eeckhaut, Oris and Matthus, 2009). 평등주의적 경향이 확산되는 사회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연령격차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약화되었고, 양성평등적 사고가 보편화되면서 부부의 연령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Atkinson and Glass, 1985; 이삼식, 1993).

비슷한 연령의 배우자를 선호하는 이 같은 경향은 결혼 당사자의 개인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74; Oppenheimer, 1988). 결혼에 임하는 남녀는 상대방이 지닌 자격과 속성을 저울질해보고 결혼을 통해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거나, 기대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Esteve,

Cortina and Cabré, 2009).

성별에 따른 결혼연령의 차이는 혼인시장의 인구구성, 즉 결혼적령기 남녀인구의 상대적인 균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젊은 여자인구의 도시이주와 출산수준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혼인시장에서 결혼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여성 교육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양성평등 관념의 광범한 확산은 혼인양상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김두섭, 2006; Kim, 2004, 2010; Yang and Liu, 2005). 혼인양상의 주요 변화로는 결혼의 지연, 독신자의 증가, 외국 여자와의 결혼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신랑과 신부의 연령격차 역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10년 혼인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랑과 신부가 동갑이거나 신부가 연상인 결혼의 비중이 30.9%로 급격하게 높아졌다(통계청, 2011b).

부부의 연령격차는 남녀의 상대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결혼에서는 부부의 연령이 차이가 나고, 특히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두드러진다. 혼인시장에서 젊은 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의 만혼 경향으로 인하여 부부의 연령격차가 심화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평등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배우자의 선택과정에서 한국 남자들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현저하게 젊은 배우자를 취하여 연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지배권을 점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격차는 지위, 경험과 권력에 있어서 연상의 남편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결혼은 근대화 과정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널리 인정된다(Smits, Ultee and Lammers, 2000; Raymo and Xie, 2000).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ockwell, 1976; Mare, 1991; Qian and Preston, 1993; Smits, 2003; Bruze, 2010). 특히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mits et al., 2000).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격차 장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결혼은 한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이삼식, 1993).

그러나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결합의 강도는 거주지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혼인시장의 왜곡(marriage squeeze)으로 인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높은 수요는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개방성과 융통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국인 아내를 구하는 한국 남자들이 부부의 교육수준의 격차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것이

라는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을 도출하였다.¹⁾ 결혼 가능한 여자인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의 하나는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결혼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에는 내국인 부부에 비해 교육수준이 이질적인 결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가설은 내국인 부부들에서 관찰되는 바, 교육수준에 따른 강력한 동질혼의 경향과는 별도의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의 질 및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Bowerman, 1964; Goode, 1966; Bernard, 1966; Rockwell, 1976; Atkinson and Glass, 1985; Vera, Berardo and Berardo, 1985; Bitter, 1986; Rogler and Procidano, 1989; Brien, Lillard and Stern, 2006; Carrère Buehlman, Gottman, Coan and Ruckstuhl, 2000). 연령과 교육수준이 개인의 가치체계, 태도, 규범과 인생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부부 동질성은 가치관, 규범, 믿음과 관점을 공유하고 상호신뢰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Kalmijn, 1998; Clarkwest, 2007). 반대로,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 상이성은 가치관의 합의, 의견일치, 만족, 상호친화력과 결혼의 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Bumpass and Sweet, 1972; Levinger, 1976).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 상이성은 결혼생활에서 긴장을 촉진시키고 상호적응의 부담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결혼해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동질적인 부부는 성공적인 상호적응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Goode, 1966; Bumpass and Sweet, 1972).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명제들은 국제결혼 부부에게 적용되어 검증된바 없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선택에 많은 제약이 수반된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내국인 간의 결혼에서 관찰되지 않는 독특한 양상을 조직적으로 나타낼 개연성이 높아진다. 만약 국제결혼에서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 상이성이 내국인 부부의 경우와 다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면, 위에 언급한 명제가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1)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지위의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배우자와의 결혼이 외국인 여자보다는 한국 남자의 배우자 선호를 주로 반영한 결과라고 가정한다. 한편,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그 성격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결혼은 결혼적령인구의 구조적 불균형보다는 세계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바 크며, 부부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김두섭, 2006). 따라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에는 국제결혼개방성 가설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할 수 있다.

Ⅲ. 분석틀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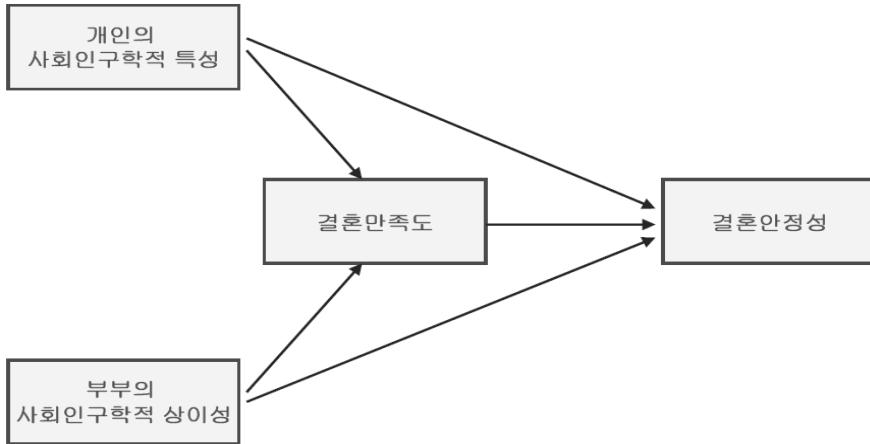
이 논문의 기본적인 전제는 국제결혼이 내국인 간의 결혼보다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부의 사회경제적 동질성과 결혼안정성의 정적인 관계가 국제결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1) 동질적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rriage), 즉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가? 만약 부부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차이가 난다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어느 쪽이 연상이고,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가?
- 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커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가?
- 3)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가 결혼해체의 위험성을 높이고, 결혼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 4)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의 방향이 결혼지속기간과 이혼확률의 편차를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 5) 부부 상이성의 수준과 그것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그림 1〉은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요 개념들과 그 인과구조를 보여준다. 결혼당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결혼안정성을 결정지우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은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외생적 결정요소(exogenous determinant)로 도입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이 인과구조에서 결혼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취급된다.

위에 제시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이다.²⁾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이

<그림 1>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의 설명틀



논문에서는 1990-2010년 기간의 『혼인 및 이혼통계자료』도 활용되었다. 분석의 초점은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에 맞추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985년 이후 한국 남자와 결혼한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및 몽골 여자 48,26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

1. 이혼의 증가추세

한국사회는 경기침체,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박경애, 2000; 통계청, 2011a). 통계청(2011b)의 이혼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는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이 1.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2.5%로 상승하였다. 지난 2003년에 기록한 3.5%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그 이후 조이혼율은 약간 감소하여 2010년에는 2.3%를 기록하였다.

2) 이 조사를 통해 전국의 다문화가구 131,702호와 외국인 배우자 73,669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혼율의 증가현상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증가에 수반하여 이들 부부의 이혼 빈도 역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김두섭, 2006; Kim, 2010; Kim and Lee, 2008).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2000년 247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7,904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을 신고한 한국 남자는 39,31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혼의 빈도는 2000-2010년의 기간에 32배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계산해도 14.4배에 달한다(통계청, 2011a, 2011b). 불과 94명의 중국인 아내가 2000년에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에는 50.1배로 폭증한 4,705명이 이혼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0년에 이혼 신고한 전체 외국인 아내의 60.3%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00-2010년의 기간에 이혼자가 1명에서 1,552명으로 증가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신국가가 되었다. 그 외 이혼한 외국인 아내들의 주요 출신국가와 그 빈도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299, 일본 259, 우즈베키스탄 174, 캄보디아 167, 그리고 몽골 154 (통계청, 2011b).

그런데 결혼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현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이다.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2004년과 2010년 각각 25.2개월과 38.4개월에 불과하였다. 특히, 한국 남자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여자와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외국인 남자와 한국 여자, 그리고 내국인 남녀의 결혼이 해체되어 2010년에 신고한 경우에는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각각 72개월과 168개월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1b).³⁾

2. 외국인 아내의 인구학적 특성

〈표 1〉은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외국인 아내들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들을 보여준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을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중국 조선족 아내들은 상대적으로 연령과 결혼연령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길며, 이미 결혼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베트남 아내들

3) 결혼지속기간은 결혼과 이혼의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따라서 결혼이 해체된 부부들의 결혼지속기간을 의미한다. 조사시점 당시에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들은 결혼지속기간의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 조선족 아내들과 가장 대비되는 특성들을 나타낸다.

한국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연령격차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평균 연령은 17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 남편과 중국인 아내의 연령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을 보면, 베트남 아내들은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과 몽골 출신의 아내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한국 남편보다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은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 남편의 상당 부분은 이미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족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의 34.3%가 재혼자이며, 다음으로 중국 한족 여자, 몽골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의 순으로 재혼율이 높다. 한국-중국 부부의 경우에는 두 배우자 모두 재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베트남 부부의 재혼율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18.5%와 2.2%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표 1>에서 계산된 평균 자녀수는 필리핀 아내가 1.3명, 그리고 중국 한족 아내가 0.6명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역사가 짧고,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평균 결혼기간이 현저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의 평균 자녀수를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출신국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결혼만족도의 점수는 전반적인 삶의 조건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외국인 아내의 응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필리핀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 몽골, 중국 한족 아내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 아내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에는 결혼안정성을 측정한 세 가지 지표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조선족 여자의 결혼에서 이혼자의 비중은 3.6%로 계산되었다. 한국-베트남 결혼에서 이혼자 비중은 0.2%로 현저하게 낮다.⁵⁾ 이에 따라

4)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시점에서 유배우 상태가 아닌 응답자들이 경우,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비 해당으로 처리하면 결혼만족도의 측정 자체가 매우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조건에 대한 삶의 만족수준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아내의 만족수준을 결합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참고로 최근에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또는 삶의 질을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증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1; 차승은·김두섭, 2008).

5) 여기에 집계된 이혼자의 비중은 과소추정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상당 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이혼 후 자신의 출신국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의 표본에 과소반영 되었을 것이다.

<표 1>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주요 인구학적 변수의 특성

변수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					합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조선족	한족				
(19,582)	(7,930)	(15,130)	(4,752)	(872)	(48,266)	
아내의 연령	37.7	33.1	24.2	31.9	31.0	32.0
남편의 연령	45.1	42.2	41.2	42.6	41.1	43.1
아내의 결혼연령	31.9	30.1	22.0	26.8	27.7	27.9
남편의 결혼연령	39.3	39.1	39.0	37.4	37.7	39.0
아내의 교육년수	10.8	10.7	8.9	12.3	12.2	10.4
남편의 교육년수	11.4	12.2	11.5	11.4	11.9	11.6
한국 거주기간(개월)	89.5	50.0	33.8	71.2	59.0	63.2
아내의 결혼경험(%)	40.9	32.4	2.2	2.5	18.4	23.2
남편의 결혼경험(%)	34.3	29.9	18.5	13.6	24.2	26.4
현재 결혼의 자녀수	0.9	0.6	0.9	1.3	0.9	0.9
결혼만족도	45.8	43.0	39.6	46.8	44.2	43.5
유배우율(%)	95.3	97.9	99.6	98.3	99.1	97.5
이혼자 비중(%)	3.6	1.6	0.2	1.0	0.6	1.9
결혼지속기간(개월)	62.5	49.8	37.3	71.1	-	60.6

주: 한국-몽골 부부 이혼자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산되지 않았음.

조사 시점에서 유배우자의 비중은 베트남 여자가 가장 높고, 중국 조선족 여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계산해보면, 한국-필리핀 부부가 71.1개월로 가장 길다. 반면, 한국-베트남 부부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37.3개월에 불과하여 가장 짧았다.

3. 선택혼의 유형과 이혼에의 취약성

국제결혼에 관한 한,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끼리 결혼한다는 동질혼의 개념은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의 교육수준이 아내의 그것보다 높은 Type 2 결혼의 빈도가 가장 많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44,906 부부 중에서 Type 2 결혼이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교육수준이 서로 비슷한 Type 1 결혼은 27.1%로 집계되었다. 가장 빈도가 낮은(22.1%) 선택혼 유형은 남편보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은 Type 3 결혼이었다.⁶⁾

<표 2>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결혼과 이혼의 구성률

결혼: N=44,906 (이혼: N=777)		부부의 연령격차				
		남편 10세+ 연상	남편 5-9세 연상	남편 0-4세 연상	아내 연상	합계
부부의 교육수준 격차	Type 1 결혼 (남편 = 아내)	14.2 (9.3)	7.4 (8.2)	4.4 (7.5)	1.1 (1.7)	27.1 (26.6)
	Type 2 결혼 (남편 > 아내)	31.3 (12.7)	11.0 (13.6)	6.6 (12.0)	1.8 (3.0)	50.7 (41.3)
	Type 3 결혼 (남편 < 아내)	10.2 (10.0)	7.1 (13.6)	3.8 (6.3)	0.9 (2.1)	22.1 (32.0)
	합계	55.8 (32.0)	25.5 (35.5)	14.9 (25.7)	3.8 (6.7)	100.0 (100.0)

주: 1) 숫자들은 각 범주에 해당하는 결혼 빈도의 전체 결혼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임. 괄호 안의 숫자들은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이혼 빈도의 전체 이혼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임.
 2) 부부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결혼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기 위하여 교육수준을 다음과 같이 7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음: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 대학원.

<표 2>는 부부의 연령에 따라서도 이질적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남편의 과반수(55.8%)가 외국인 아내보다 10년 이상의 연상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한국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5-9년 연상인 경우가 25.5%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가 연상인 결혼은 3.8%로 그 점유율이 가장 낮았다. 국제결혼의 이 같은 연령격차는 내국인끼리의 결혼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예를 들어 2010년 혼인신고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 부부의 경우, 위의 세 가지 범주의 비중이 각각 3.2%, 18.2%, 그리고 16.4%에 해당된다(통계청, 2011b).

<표 2>에서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들은 전체 이혼 사례수에 대한 해당 범주 이혼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부부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이혼의 빈도는 Type 2 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Type 3 유형이었다. 그리고 Type 1 유형의 이혼이 빈도가 가장 작았다. 그러나 Type 2 유형의 이혼부부 비중이 Type 2 결혼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부부의 연령 차이에 관한 한, 이혼에 가장 취약한 형태는 남편이 아내보다 5-9년 연상인 결혼이었다. 비록 그 집중도는 뚜렷하게 낮지만, <표 2>에서 이혼에 따른 각 해당 범주의 순서는 결혼에 따른 순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6) 이와 비슷한 분석들(교육수준을 6개의 범주로 나누었음)을 2009년에 혼인신고한 한국인 부부들에게 적용한 결과, 절대다수(67.5%)가 Type 1 결혼으로 집계되었으며, Type 2 및 Type 3 결혼은 각각 18.3%와 14.3%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동질적 선택혼의 가설은 국제결혼 부부에게는 널리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2004-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동질적 선택혼이 편재함을 확인하였던 김두섭과 이명진(2008)의 분석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두 분석결과가 달라진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이 연구에 사용된 2009년 자료의 분석대상 크기가 2004-2005년 자료보다 월등하게 커지고 결혼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를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교육수준의 범주 역시 7가지로 보다 세분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결혼과 이혼의 각 범주가 전체에 대한 구성률 분포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해체의 위험성을 반드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음 절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V.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와 결혼안정성

1. 이혼한 부부의 연령 및 교육상이성

우선, 이 연구는 부부의 연령 및 교육상이성 수준과 부부 상이성이 결혼안정성과 유지하는 관계의 양상이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한 부부들의 연령상이성 지수와 교육상이성 지수를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계산하였다. 상이성 지수의 계산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2010)의 2009년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의 아내와 한국 남편 간의 이혼 7,315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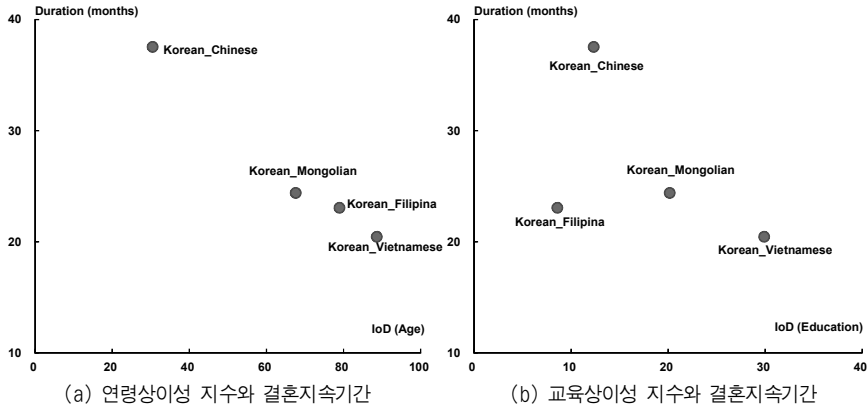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부부의 연령상이성 지수는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중국 부부는 연령의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긴 결혼지속기간을 보여준다. 연령상이성 지수가 높은 한국-몽골 부부와 한국-필리핀 부부는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베트남 아내와

7) 연령상이성 지수는 남편과 아내의 9개 연령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백분율 차이의 절대값을 합하여 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교육상이성 지수는 남편과 아내의 6개 교육수준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백분율 차이의 절대값을 합하여 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D = \sum |p(h,i) - p(w,i)| / 2.$$

여기서 h, i는 남편의 집단이고 w, i는 부인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 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상이성 지수와 결혼지속기간, 2009



자료: 통계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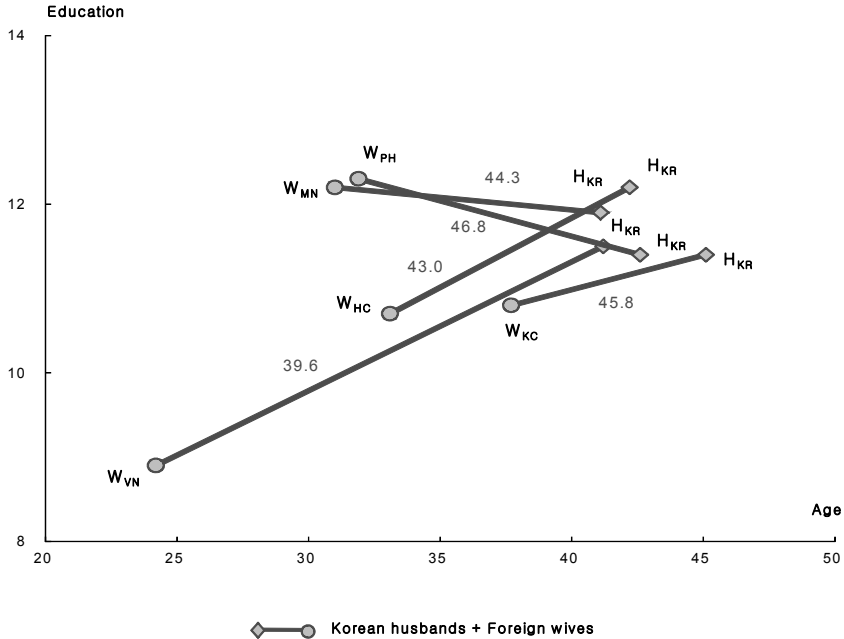
한국 남편은 연령상이성 지수가 가장 높고, 결혼지속기간이 가장 짧다.⁸⁾

연령상이성 지수를 교육상이성 지수로 대체하면, <그림 2>의 (b)에서 보는 것처럼, 부적인 관계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난다. 부부의 교육상이성과 결혼안정성의 부적 관계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의 격차가 큰 한국-베트남 부부는 결혼지속기간이 매우 짧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한국-필리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가장 긴 것은 아니다. <그림 2>의 (b)에 나타난 관계의 양상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몽골, 필리핀 및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교육격차의 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지속기간이 매우 짧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것은 거시수준의 분석에서 드러난 이 같은 관계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이를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서 국제결혼의 성격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에 광범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혼신고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수준에서는 더 이상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면, 일부 국가의 경우에 연령 및 교육상이성 지수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

8) <그림 2>를 보면, 네 국가 출신의 아내와 결혼한 한국 남편의 결혼지속기간이 <표 1>에 제시된 결혼지속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 <표 1>에 제시된 값들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되었다. 이에 비해 <그림 2>의 값들은 2009년에 이혼을 신고한 국제결혼 부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림 3>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부부의 연령-교육 거리와 결혼만족도



- 주: 1) KR (한국); KC (중국 조선족); HC (중국 한족); VN (베트남); PH (필리핀); MN (몽골).
- 2) H는 남편; W는 아내를 의미함.
- 3) 숫자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임.

로 이혼 사례수가 충분하게 크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2. 부부의 거리와 결혼만족도

이 논문에서는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격차가 미치는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부부의 거리(spousal distance)”라는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였다. 부부의 거리는 연령과 교육수준의 격차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⁹⁾

<그림 3>에는 부부의 거리와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9)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거리(D)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D = \sqrt{(Age_h - Age_w)^2 + (Edu_h - Edu_w)^2}$$

여기에서 Age는 연령을, Edu는 교육수준을 뜻하며, h와 w는 각각 남편과 아내를 의미하는 아래첨자이다.

로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부부의 연령 및 교육격차의 양상이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중국과 베트남 여자들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몽골 부부와 한국-필리핀 부부들은 확연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두 배우자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보면 남편이 연상이지만, 평균 교육수준은 몽골 또는 필리핀 아내가 한국 남편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부부의 거리와 결혼만족도는 명백하게 부적 관계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 숫자로 제시된 결혼만족도의 평균값은 배우자와의 거리가 먼 아내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베트남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평균 39.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부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필리핀 또는 중국 조선족 아내들의 평균 결혼만족도는 각각 46.8점과 45.8점으로 집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¹⁰⁾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의 연령이나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의 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부의 거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교육수준이 상승하면 부부의 거리가 오히려 짧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 남자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선택과정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일 것이라는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다. 이는 외국인 아내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또한, 부부의 거리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 남편이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지며, 외국인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서울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에서 짧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Type 3 결혼의 경우에는, 아내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Type 2 결혼에 비해 부부의 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3> 역시 부부의 거리가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이 회귀모형에서 기준집단으로 삼은 중국 조선족 아내에 비해 다른 출신국가의 아내들이 한국 남편과의 거리가 멀다. 부부의 거리는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부부의 거리가

10)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아내의 연령, 아내의 결혼연령 등 아내의 인구학적 속성들은 <표 3>의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3> 부부의 거리에 관련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

	부부의 거리	
	b	beta
남편의 연령	0.34**	0.39
남편의 결혼연령	0.19**	0.22
남편의 교육년수	0.70**	0.09
아내의 교육년수	-0.80**	-0.11
한국 거주기간	-0.02**	-0.16
남편의 재혼	-0.56**	-0.04
아내의 재혼	-5.44**	-0.35
화이트칼라 남편	-0.12**	-0.01
아내의 경제활동 경험	-0.51**	-0.03
아내의 현재 경제활동	-0.89**	-0.07
서울 거주	-0.47**	-0.03
Type 2 결혼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0.29**	0.02
Type 3 결혼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0.96**	0.06
한족 아내	0.92**	0.05
베트남 아내	6.30**	0.45
필리핀 아내	1.92**	0.09
몽골 아내	2.25**	0.05
(회귀상수)	-9.13**	
사례수	43,896	
R2	0.64	
F 비	4,540.62**	

주: 1) **: p<0.01.

2) 남편의 재혼 (재혼=1, 기타=0); 아내의 재혼 (재혼=1, 기타=0); 화이트 칼라 남편 (화이트칼라 =1, 기타=0); 아내의 경제활동 경험 (경험 있음=1, 경험 없음= 0); 아내의 현재 경제활동 (일하고 있음=1, 일하지 않음=0); 서울 거주 (서울 거주=1, 기타=0); Type 2 결혼 (Type 2 결혼=1, 기타 =0); Type 3 결혼 (Type 3 결혼=1, 기타=0); 한족 아내 (한족 아내=1, 기타=0); 베트남 아내 (베트남 아내 =1, 기타=0); 필리핀 아내 (필리핀 아내=1, 기타=0); 몽골 아내 (몽골 아내=1, 기타 =0).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몽골, 필리핀, 중국 한족 여자와 결혼한 부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3.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의 방향성

이 연구에서는 부부 격차의 방향성이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가정하였다. 부부 격차의 방향, 즉 남편과 아내의 어느 쪽이 상대방보다 연령이

<표 4> 부부의 연령격차 및 결혼 유형별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의 평균값

	결혼만족도			결혼지속기간 (개월)		
	평균	N	F	평균	N	F
부부의 연령격차						
남편 10년+ 연상	41.0	25,978		57.5	271	
남편 5-9년 연상	43.0	11,249		65.7	289	
남편 0-4년 연상	42.4	6,507		57.6	201	
아내 연상	41.9	1,681		60.6	59	
합계	41.7	45,415		60.6	820	
			45.56**			2.50*
결혼 유형						
Type 1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41.2	11,518		62.4	191	
Type 2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40.7	21,640		59.7	276	
Type 3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44.7	9,303		67.3	228	
합계	41.7	42,461		63.0	695	
			211.19**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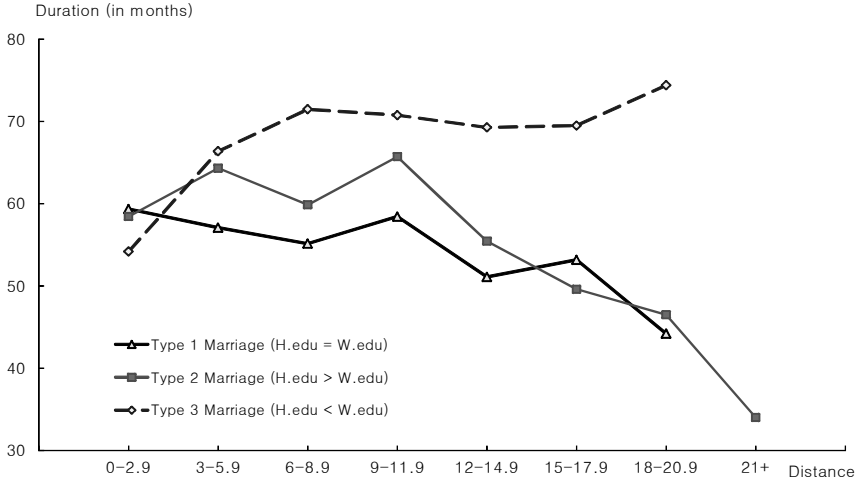
주: †: p<0.1; *: p<0.05; **: p<0.01.

나 교육수준이 높은가를 분석에 반영하여 결혼안정성의 인과구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하였다. 부부 격차의 방향성은 부부가 일상생활의 불화를 극복하거나 상호 적응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Bumpass and Sweet 1972; Bitter 1986; Rogler and Procidano 1989).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이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부부 사이의 사소한 마찰이 결혼생활에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표 4>에는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가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NOVA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시점 당시 결혼상태가 유지되던 45,415쌍의 부부 중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10년 이상 연상인 부부의 비중은 57.2%이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820쌍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33.1%로 집계되었다. 결혼상태가 지속되던 부부 중에서는 불과 3.7%만이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아내가 연상인 부부의 비중이 7.2%이었다.¹¹⁾

11)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에서 결측값을 지닌 사례들은 이 ANOVA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표 4>에 제시된 구성분포는 <표 2>에서의 구성분포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 부부의 거리 및 결혼 유형에 따른 평균 결혼지속기간



한국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이 5-9년 연상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결혼지속기간도 평균 65.7개월로 가장 길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내 연상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은 전체 부부의 평균값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를 보면,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이 결혼 유형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편차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Type 3 결혼의 외국인 아내들은 나머지 두 결혼 유형의 아내들보다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Type 3 결혼은 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Type 1과 Type 2 결혼을 대상으로 계산된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의 평균값들은 그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림 4〉는 부부의 거리와 결혼지속기간의 관계가 결혼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Type 1 결혼과 Type 2 결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지는 부적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Type 3 결혼에서는 부부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결혼이 오히려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부부의 거리와 결혼지속기간의 관계의 양상이 이처럼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결혼 유형에 따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구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ype 3 결혼에는 필리핀과 몽골 아내의 비중이 높고, 한국 남편의 직업

이 화이트칼라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Type 3 결혼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내들은 경제활동의 경험을 가지거나 조사시점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4. 회귀분석과 이항로지분석

위에서 살펴본 ANOVA의 결과는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차이가 증가할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 4>에서는 결혼지속기간의 주요한 결정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개인적 요인들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림 4>에서 밝혀진 것처럼, 결혼 유형에 따라 부부의 거리와 결혼지속기간이 다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감안하여, 부부의 거리와 Type 3 결혼을 결합한 상호작용항이 회귀모형에 도입되었다. 두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1]은 설명력($R^2=0.04$)이 그리 높지 않다. 부부 상이성을 나타내는 6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4개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외국인 아내가 결혼생활에 보다 만족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이거나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면(Type 2 결혼),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 부부의 거리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흥미롭다. 상호작용항의 강한 정적 회귀계수는 부부의 거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Type 3 결혼에서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외국인 아내는 자신의 한국 남편이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차이를 보일 때, 오히려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외국인 아내의 결혼연령, 결혼 경험, 그리고 화이트칼라 남편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내의 경제활동 경험, 현재의 경제활동, 그리고 자녀의 존재는 결혼의 만족도를 강력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의 [모형 2]에서는 종속변수가 결혼지속기간으로 대체되었다. 남편이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Type 2 결혼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Type 1 결혼보다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는, 아내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Type 3 결혼의 부적 회귀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ANOVA

<표 5> 유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자의 결혼지속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혼만족도 [모형 1]		결혼지속기간 [모형 2]	
	b	beta	b	beta
아내의 연령	0.51 **	0.28	4.14 **	0.77
남편 5-9년 연상	0.26	0.01	5.22 †	0.06
아내 연상	-1.04 *	-0.01	3.11	0.02
아내의 교육년수	-0.21 **	-0.04	1.16 †	0.07
Type 2 결혼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0.93 **	-0.03	6.09 †	0.07
Type 3 결혼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0.29	0.01	-3.19	-0.04
부부의 거리	0.09 **	0.04	-0.22	-0.03
상호작용 (Type 3 결혼 × 부부의 거리)	0.10 **	0.04	0.68	0.09
아내의 결혼연령	-0.31 **	-0.15	-3.61 **	-0.71
남편의 재혼	0.31	0.01	-3.80	-0.05
아내의 재혼	-1.11 **	-0.03	0.84	0.01
화이트칼라 남편	-0.38 †	-0.01	8.00 †	0.06
아내의 경제활동 경험	2.56 **	0.07	5.81	0.06
아내의 현재 경제활동	2.58 **	0.08	5.92	0.07
서울 거주	-0.06	0.00	-10.08 **	-0.12
자녀수	1.16 **	0.12	15.52 **	0.29
결혼만족도			0.17	0.04
(회귀상수)	33.09 **		-30.18	
사례수	39,218		608	
R ²	0.04		0.35	
F 비	109.44 **		18.42 **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2) 남편 5-9년 연상 (남편 5-9년 연상=1, 기타=0); 아내 연상 (아내 연상=1, 기타=0); Type 2 결혼 (Type 2 결혼=1, 기타=0); Type 3 결혼 (Type 3 결혼=1, 기타=0); 남편의 재혼 (재혼=1, 기타=0); 아내의 재혼 (재혼=1, 기타=0); 화이트칼라 남편 (화이트칼라=1, 기타=0); 아내의 경제활동 경험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아내의 현재 경제활동 (일하고 있음=1, 일하지 않음=0); 서울 거주 (서울 거주=1, 기타=0).

3) 상호작용 (Type 3 결혼 × 부부의 거리)은 (Type 3 결혼)과 (부부의 거리)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형 2]에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보다 5-9년 연상인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아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지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진다. 이 회귀모형에서 부부의 거

리와 상호작용항(Type 3 결혼 × 부부의 거리)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그림 4>에서 확인된 관계의 양상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두 회귀계수 모두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되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모형 2]에 포함된 통제변수 중에서 화이트칼라 남편과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회귀계수를, 그리고 아내의 결혼연령과 서울 거주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남편이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결혼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일수록 결혼지속기간은 줄어든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의 상관계수는 0.10으로 계산되었으며,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모형 2]에서 매개변수인 결혼만족도가 결혼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렌탈(Lenthall, 1977)이 지적한 것처럼,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내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생활의 만족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과 충분히 상호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이 결혼의 해체 위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상이성과 결혼안정성간의 정적인 관계는 <표 6>에 제시된 이항로지분석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3]을 보면, Type 2 결혼과 Type 3 결혼의 이혼확률은 Type 1 결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인 부부도 이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혼의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Type 3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형 3]에서는 아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도입되면, 부부의 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부 상이성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격차에 따라 부부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혼이 조기에 해체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내의 연령과 이혼확률의 정적 관계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내의 결혼연령을 제외하고는, [모형 4]의 하단에 제시된 8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몇몇 통제변수의 로지트계수들은 <표 5>에 제시된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일관적

<표 6> 이혼확률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이혼확률					
	[모형 3]			[모형 4]		
	b	std error	Exp(b)	b	std error	Exp(b)
아내의 연령	0.09 **	0.01	1.09	0.08 **	0.02	1.08
남편 5-9년 연상	0.12	0.08	1.13	0.05	0.16	1.06
아내 연상	-0.31 *	0.16	0.74	0.07	0.32	1.07
아내의 교육년수	0.01	0.02	1.01	0.03	0.03	1.03
Type 2 결혼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0.21 *	0.10	0.81	-0.02	0.19	0.98
Type 3 결혼 (남편 교육 < 아내 교육)	-0.33 *	0.16	0.72	-0.34	0.33	0.71
부부의 거리	-0.04 **	0.01	0.96	-0.08 **	0.02	0.92
상호작용 (Type 3 결혼 × 부부의 거리)	0.04 *	0.02	1.04	0.03	0.03	1.04
아내의 결혼연령				-0.15 **	0.02	0.86
남편의 재혼				0.48 **	0.19	1.61
아내의 재혼				0.64	0.22	1.89
화이트칼라 남편				0.38 †	0.22	1.46
아내의 경제활동 경험				0.54 †	0.28	1.72
아내의 현재 경제활동				0.53 *	0.26	1.69
서울 거주				0.45 **	0.16	1.57
자녀수				-0.99 **	0.12	0.37
결혼만족도				0.16 **	0.01	1.17
(회귀상수)	-6.88	0.34	0.00	-14.90 **	0.85	0.00
사례수		44,914			40,115	
Nagelkerke R ²		0.09			0.82	
Log Likelihood Ratio		7,160.97 **			1,347.57 **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2) <표 5>의 주 2)와 3)을 참조할 것.

인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회귀계수와 로짓계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혼확률과 결혼지속기간이 결혼안정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들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VI. 맺는 말

이 논문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려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첫째,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을 도출하여 혼인연구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 가설의 도출은 서로 비슷한 사회적 속성을 지닌 배우자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동질적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rriage)의 기존 가설을 국제결혼 부부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로, 결혼안정성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은 사회인구학적 동질혼의 가설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만족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해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결혼지속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가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설이 국제결혼 부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관한 인구학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은 적절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는데 기인하는바 크다. 혼인이주의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혼 사례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더욱이 이를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따라서 정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는 외국인 배우자 모집단의 약 55.9%(73,669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강점을 지니며, 표집오차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 간의 동질적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rriage)의 개념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10년 이상 연상인 부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남편이 5-9년 연상인 부부가 많았고,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인 부부가 가장 적었다. 부부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결혼과 이혼의 빈도를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된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의 결혼(Type 2)이 가장 많았고,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결혼 유형(Type 1)의 비중은 26-27%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부부의 거리라는 변수를 만든 결과, 결

혼만족도와와의 강한 부적 관계가 관찰되었다. 한국 남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시기가 늦어지거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편이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지거나 서울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부부격차의 방향이다. 한국 남자가 개발도상국 출신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교육수준으로 볼 때, 하향성 결혼(marrying down)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몽골과 필리핀 출신의 아내들은 남편보다 연령은 낮지만 교육수준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ANOVA와 회귀분석의 결과는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결혼지속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기존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ANOVA의 결과를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5-9년 연상인 부부가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결혼 유형에 따라서는 Type 3 결혼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고, Type 2 결혼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는 Type 2 결혼이 Type 1 결혼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내의 연령과 교육년수가 결혼지속기간에 정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5-9년 연상인 부부를 제외하고는, 부부의 연령 격차가 결혼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드러난 흥미로운 발견의 하나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지속기간이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에 대해 일관적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인과구조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항로지분석의 결과는 Type 2 결혼과 Type 3 결혼의 이혼확률이 Type 1 결혼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통제변수들이 포함된 포화모형에서 Type 2 결혼과 Type 3 결혼의 로짓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과는 달리,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혼의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Type 3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을 요약하면, 국제결혼 부부들의 경우에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해체의 위험성을 높이고 결혼지속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기존연구의 가설들도 지지되지 않았

다. 이는 한국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단일민족의 전통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는 같은 민족 구성원 간의 결혼이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잠재적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들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은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동질혼을 통해 지위 간의 장벽이나 지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국제결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내국인 부부에 비해 국제결혼 부부들은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높고, 또한 부부의 상이성이 이혼확률을 높이거나 결혼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 논문에서 사용된 결혼안정성의 세 지표들의 분산이 아직 상당 부분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결혼 부부들은 대부분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와 아울러 직업, 문화, 종교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 이루어진 회귀분석과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상이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혼안정성에 관한 장래 연구는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을 다루는 심리적 변수들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두섭 · 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현숙 · 김희재 · 오중환 (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 박경애 (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 23(1): 5-29.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1993) “한국인의 혼인행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6(2): 84-110.
- 차승은·김두섭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인구학》 31(3): 131-157.
- 통계청 (2010) 《2009년 이혼통계》 원자료.
- _____ (2011a)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kr/index.jsp>.
- _____ (2011b) 《2010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 Atkinson, M. P. and B. L. Glass (1985) “Marital Age Heterogamy and Homogamy 1900 to 198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3: 685-691.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in T. W. Schultz (ed.),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99-344.
- _____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nard, J. (1966) “Marital Stability and Patterns of Status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4: 421-439.
- Birkelund, Gunn Elisabeth and Jahan Heldal (2003) “Who Marries Whom? Educational Homogamy in Norway” *Demographic Research* 8,1: 1-30.
- Bitter, R. G. (1986) “Late Marriage and Marital Instability: the Effects of Heterogeneity and Inflexi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3: 631-640.
- Blau, P. M. and J. E. Schwartz (1983) *Crosscutting Social Circles: Testing a Macrostructural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Bowerman, C. E. (1964) “Predication Studies” in H. T. Christensen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pp. 215-246.
- Brien, Michael J., Lee A. Lillard and Steven Stern (2006) “Cohabitation, Marriage, and Divorce in a Model of Match Qualit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7,2: 451-494.
- Bruze, Gustaf (2010) “New Evidence on the Causes of Educational Homogamy” *Working Paper 10-18* Department of Economics, Aarhus University, Aarhus, Denmark: Aarhus University.
- Bumpass, L. L. and J. A. Sweet (1972) “Differentials in Marital Instability:

- 197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6: 754-766.
- Carrère, Sybil, Kim T. Buehlman, John M. Gottman, James A. Coan and Lionel Ruckstuhl (2000) “Predicting Marital Stability and Divorce in Newlywed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42-58.
- Çelikaksoy, Aycan, H. S. Nielson and M. Verner (2006) “Marriage Migration: Just Another Case of Positive Assortative Matching?”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4.3: 271-293.
- Chen, Yu-Hua (2008) “Individu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Marital Stability: An Exploration of Cross-border Marriage in Taiwan” in Doo-Sub Kim (ed.),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pp. 35-61.
- Clarkwest, Andrew (2007) “Spousal Dissimilarity, Race,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639-653.
- Curtright, P. (1971) “Income and Family Event: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2: 291-306.
- Esteve, Albert, Clara Cortina and Anna Cabré (2009) “Long Term Trends in Marital Age Homogamy Patterns: Spain, 1922-2006” *Population (English edition)* 64.1: 173-202.
- Goode, W. J. (1966) “Family Disorganization” in R. K. Merton and R. A. Nibset (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p. 479-552.
- Kalmijn, M. (1993) “Spouse Selection among the Children of European Immigrants: A Comparison of Marriage Cohorts in the 1960 Censu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7.1: 51-78.
- _____ (1998)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395-421.
- Kim, Doo-Sub (2004) “Missing Girls in South Korea: Trends, Levels and Regional Varia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59.6: 865-878, Paris: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 _____ (2010) “The Rise of Cross-border Marriage and Divorce in Contemporary Korea” in Wen-Shan Yang and Melody Chia-Wen Lu (eds.), *Asian Cross-border Marriage Migration: Demographic Patterns and Social Issue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127-153.
- Kim, Doo-Sub and Myoung-Jin Lee (2008) “Spousal Dissimilarity and Marital

- Instability: An Analysis of Divorced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n Doo-Sub Kim (ed.), *Cross-Border Marriage: Process and Dynamics*, Seou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pp. 7-34.
- Lenthall, Gerald (1977)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4: 25-31.
- Levinger, G. (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21-47.
- Lichter, D. T. (1990) “Delayed Marriage, Marital Homogamy, and the Mate Selection Process among White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71.4: 802-811.
- Lievens, J. (1998) “Interethnic Marriage: Bringing in the Context through Multilevel Modeling”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4.2: 117-155.
- Mare, D. (1991) “Five Decades of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1: 15-32.
-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ssortative Mating under Varying Degrees of Uncertain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4.4: 563- 591.
- Poppel, F. V., A. C. Liefbroer, J. K. Vermunt and W. Smeenk (2001) “Love, Necessity and Opportunity: Changing Patterns of Marital Age Homogamy in the Netherlands, 1850-1993” *Population Studies* 55.1: 1-13.
- Putte, B. V. de, F. V. Poppel, S. Vanassche, M. Sanchez, S. Jidkova, M. Eeckhaut, M. Oris and K. Matthus (2009) “The Rise of Age Homogamy in 19th Century Western Europ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234-1253.
- Qian, Z. (1999) “Who Intermarries? Education, Nativity, Region, and Interracial Marriage, 1980 and 1990”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4: 579-597.
- Qian, Z., S. L. Blair and S. D. Ruf (2001) “Asian American Interracial and Interethnic Marriages: Differences by Education and Nativ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5.2: 557-586.
- Qian, Z. and S. H. Preston (1993) “Changes in American Marriage, 1972 to 1987: Availability and Forces of Attraction by Age and Edu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4: 482-495.

- Raymo, James M. and Yu Xie (2000) "Temporal and Regional Variation in the Strength of Educational Homoga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5: 773-781.
- Rockwell, R. C. (1976) "Historical Trends and Variations in Educational Homogam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83-95.
- Rogler, L. H. and M. E. Procdano (1989) "Marital Heterogamy and Marital Quality in Puerto 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363-372.
- Schwartz, Christine R. and Robert D. Mare (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621-646.
- Smits, Jeroen (2003) "Social Closure among the Higher Educated: Trends in Educational Homogamy in 55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32,2: 251-277.
- Smits, Jeroen, Wout Ultee and Jan Lammers (1998) "Educational Homogamy in 65 Countries: An Explanation of Differences in Openness Using Country-Level Explanatory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2: 264-285.
- _____ (2000) "More or Less Educational Homogamy? A Test of Different Versions of Modernization Theory Using Cross-Temporal Evidence for 60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5: 781-788.
- Udry, J. R. (1966) "Marital Instability by Race, Sex, Education, and Occupation Using 1960 Census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2: 203-209.
- Vera, H., D. H. Berardo and F. M. Berardo (1985) "Age Heterogamy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3: 553-566.
- Yang, Wen-Shan and Ying-Ying T. Liu (2005) "Gender Imbalances and the Twisted Marriage Market in Taiwan" *Presented at the Cepad-Ciced-INED Conference on Female Deficit in Asia: Trends and Perspectives, Asian MetaCenter for Popul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sis* Singapore, December 5-7, 2005.

[2012. 1. 9 접수 | 2012. 2. 15 심사(수정) | 2012. 2. 17 채택]

Spousal Dissimilarity in Age and Education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A Test of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

Doo-Sub Kim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spousal dissimilarity on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Korean National Multi-culture Family Surve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ormation of transnational marriage generally involves positive assortative matching on age and education. Indices of age dissimilarity and educational dissimilarity are calculated for each country of origin of the foreign wife, and their relationships to the average duration of marriage are analyzed. This study also conducts a micro-level analysis of whether age and educational dissimilarity between spouses helps explain variations in marital duration and probability of getting divorced. Results show greater incidences of spousal dissimilarity in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transnational couples, which supports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extant hypothesis that spousal dissimilarity increases the risk of marital dissolution and shortens the duration of marriage is not found to fit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Key Words: Transnational marriage, Positive assortative marriage, Spousal dissimilarity,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 Marital stability, Marital duration